

축 사

오늘은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고 시천주(侍天主)의 진리를 깨달아 동학을 창도한 천도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천도교인 여러분과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50여 년 전 우리 사회는 열강의 간섭과 침탈이 시작되면서, 서구문물이 민족의 정신사를 잠식하여 민족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을 종지로 내세운 수운 대신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전파하며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유일신인 절대자의 의지에 예속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가르침을 펼치며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기를 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다운 삶이라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 60여년 만에 우리 민족은 유례를 찾기 힘든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은 전쟁의 위협을 상존하게 하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분열과 갈등이라는 과보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환경과 생명사상의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물질주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이기주의, 그리고 나만이 옳다는 독선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는 더욱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이신환성(以身煥性)을 통한 정신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천일기념일을 새로운 정신개혁이 시작되는 계기로 삼아 보국안민과 포덕광제에 힘써 주시기길 바랍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불교와 인연이 깊듯이 불교의 가르침과 인내천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천도교와 불교가 지금 이 시대로부터 부여되는 사명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인류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도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와 천도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동시에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쳐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포덕 153년 천일기념일을 축하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불기2556년 4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